

[붙임 1] 연주 프로그램

10월 27일 (금)

19:30 Classic Friday

J. Haydn String Quartet in C major, Op.33-3 'The Bird'

L. v. Beethoven String Quartet No.3 in D major Op.18-3
<Vn.I Liza Kerob Vn.II 김정민 Va. 이한나 Vc. 심준호 with Les Chanteurs d'Oiseaux>

Intermission

L. v. Beethoven Piano Trio No.7 Op.97 'Archduke'
<Trio Owon>

10월 28일 (토)

14:00 Melodic Saturday Part 1

S. Rachmaninoff Piano Trio élégiaque No.1 in G minor

P. I. Tchaikovsky Piano Trio in A minor, Op.50
<Trio Owon>

Meet the Artist <청중과의 대화>

16:30 Melodic Saturday Part 2

J. S. Bach Toccata in D major, BWV 912

J. S. Bach Goldberg Variations, BWV 988
< Cem. 조성연>

Lecture Concert <하프시코드의 세계>

19:00 Melodic Saturday Part 3

F. Schubert klavierstücke No.2 in Eb major, D.946
<Pf. Emmanuel Strosser>

F. Schubert Fantasy for 4 hands in F minor, D.940
<Pf. Emmanuel Strosser, Hiroaki Yamaguchi>

F. Mendelssohn String Octet in Eb major, Op.20
<Vn. Olivier Charlier, 김정민, 임흥균, Liza Kerob
Va. 이수민, 이한나 Vc. 양성원, 심준호>

10월 29일 (일)

14:00 Sunday Fall 1부

G. F. Handel Trio Sonata in B minor, Op.2, No.1 HWV 386b

G. F. Handel Scherza Infida" from Opera 'Ariodante'

G. F. Handel Ombra mai fu" from Opera 'Xerxes'

J. J. Froberger Suite in A minor

M. Marais Les Folies d'Espagne

A. Vivaldi Nel profondo cieco mondo" from 'Vivaldi's Orlando furioso'

G. F. Handel Lascia ch'io pianga" from Opera 'Rinaldo'

A. Vivaldi Agitata da due venti" from Opera 'Griselda'
<Baroque Ensemble>

15:30 Sunday Fall 2부

J. Haydn String Quartet in D major, Op.64-5 'Lark'
<Vn.1 Liza Kerob Vn.2 김정민 Va. 이한나 Vc.심준호>

<Acte I: Apparition>

E. Granados Danse Espagnole, n°2 Andante (Pic vert, Pic noir)

B. Bartok Danse Roumaine, n°3 (Sz.56)

Arrangement Zoltan Szeleky (Sirli du désert)

R. v. Williams Le vol ascensionnel de l'Alouette (Alouette des champs)

<Acte II: L'Amour>

F. Kreisler Schön Rosmarin
(Fauvette à tête noire, Tourterelle , Pigeons ramier, Faisan de Colchide)

- E. Satie Gymnopédie, n°3 (Laridés)
- E. Granados Danse Espagnole, n°5 Andantino quasi allegretto
- E. Granados La jeune fille et le rossignol (Rossignol philomèle)
- F. Schubert Ständchen
Transcription Schubert-Liszt (Rossignol progné, Chouette hulotte)

<Acte III: Lutte et Résurrection>

- C. Saint Saëns La Danse Macabre
- I. Stravinsky Berceuse extrait de l'Oiseau de feu
Arrangement de Soulima Stravinsky
(Coucal du Sénégal, Engoulevent du Mozambique, Pygargue vocifère, Piauhau hurleur)
- P. Casals Le chant des oiseaux (Grive draine)
- C. Debussy La plus que lente
Transcription de Léon Roques (Buse variable, Martinet noir)

<Acte IV: Final>

- P. I. Tchaikovsky Le Lac des Cygnes-la scène finale
Arrangement de Granville Bantock (Grue, Cygne chanteur, plume de condor)
< Les Chanteurs d'Oiseaux Vn.I Liza Kerob Pf. Hiroaki Yamaguchi>

17:00 Sunday Fall 3부

- Themes from 'Mission Impossible'
- Chaplin Medley (with Emmanuel)
- Shalom
- Bucimis
- 2 Choros (Brasileirinho and Ticotico)
- Loro
- Al fin te vi
- Irish set
- Tombo7/8
<Pf. Hiroaki Yamaguchi Perc. Bruno Desmouillières>

[붙임 2] 연주자 프로필

예술감독, 첼로 양성원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톤과 뛰어난 선율감각의 소유자.
찬란한 기교와 대담한 표현은 코다이 음악의 웅대함을 최고조로 느끼게 한다.
- 영국 *Gramophone*

그는 경지에 이른 예술가이다.
웅장한 사운드, 유려하면서 강력한 연주력의 소유자이면서도 추호의 음악적 허영을 찾아볼 수 없다.
- 영국 *The Sunday Times*

넘치는 상상력과 빛나는 테크닉.
한치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음정의 연주
- 미국 *Washington Post*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은 오스트리아의 뮤직 베라인, 파리의 샬레렐, 살 가보우, 뉴욕의 링컨 센터, 카네기 홀, 워싱턴DC의 테라스 극장, 동경의 오페라 시티홀, 중국 북경의 NCPA 등 세계 굴지의 유명 연주장의 공연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초청이 끊이지 않는 아티스트이다. EMI에서 발매된 그의 코다이 데뷔앨범은 영국 그라모폰지의 '에디터스 초이스(2002)'와 '크리틱스 초이스(2003)'로 선정되었으며 네덜란드의 '에디슨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어 피아니스트 문익주와 라흐마니노프와 쇼팽의 낭만적 작품집(2002),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전집(2005),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박이용과 베토벤 첼로 소나타와 바리에이션 전곡집(2007)을 발표하였다. 이후 데카 레이블로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와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로세와 함께 슈베르트 작품집을 발표하였으며(2009),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드보르작 협주곡과 둠키 트리오를 녹음하여 2010년 가을 유니버설/데카에서 발매하였다. 프랑스의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백과의 'Musical Getaway'(2012)', 음반과 영상물이 함께 담긴 트리오 오원의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대공과 E flat, Op.70 No.2(2013),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와의 브람스 첼로 소나타와 슈만 작품모음집(2014)을 차례로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트리오 오원의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녹음하여 유니버설/데카에서 발매했다. 2013년 비엔나 뮤직 베라인에 초대되어 오스트리아 방송교향악단과 협연한 양성원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정경화, 정명훈, 즈네덱 마칼, 피터 외트보쉬를 비롯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연주해왔다. 그가 연주한 생상스의 협주곡과 브람스 더블 콘체르토,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변주곡은 프랑스 국영 TV를 통해 전 유럽에

방송되었으며, 이 밖에도 프랑스의 France Musique와 일본의 NHK, 한국의 KBS등을 통해 실황 방송되었다. 2012년 파리 살 플레이엘에서 드보르작 협주곡을 Orchestre de Colonne와 연주하였고, 피터 위트보쉬의 첼로 협주곡을 서울시향과 함께 아시아 초연하였으며, 2013년에는 바흐 무반주 모음곡 전곡 독주회 10회를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 가져 언론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캐나다 밴프 국제 실내악 콩쿠르, 앙드레 나바라 국제 콩쿠르, 카사도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 미국의 이스트만, 예일, 독일의 마인츠, 캐나다의 에드몬튼 대학 등에서 연주와 마스터클래스를 가졌다.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9년 제4회 대원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상을 수상한 양성원은 서울 태생으로 파리음악원과 인디애나 대학에서 수학하여 최고연주자 과정을 취득했으며, 명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조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 음대 교수이자 영국 런던의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의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문화 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페스티벌 오원의 예술감독인 그는 전 세계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Trio OWON



<Pf. Emmanuel Strosser Vn. Olivier Charlier Vc. Sung-Won Yang>

<트리오 오원>은 피아니스트 엠마뉴엘 슈트로세(현 파리음악원 교수),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현 파리음악원 교수), 첼리스트 양성원(현 연세대학교 교수) 세 명의 파리음악원 출신의 한불 연주자로 구성되었다. 각자 솔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실내악 음악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모아 2009년 결성하였으며 한국과 프랑스라는 지역적, 문화적 경계를 허문 음악인이 하나가 되어 깊고도 다채로운 예술적 영감을 통해 청중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트리오 오원>의 이름은 조선시대 화가 오원(吾園) 장승업의 삶과 예술혼을 기리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한다. 뛰어난 감성과 사상을 소유한 조선화단의 거장 장승업은 우리 근대 회화의 토대를 이루었으며 정교한 묘사력으로 생기 넘치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의 일대기는 영화 <취화선>(2002년 칸느 국제영화제 수상작)에 담겨 굴곡진 삶에서도 의연했던 오원이 품었던 호기심과 예술을 향한 헌신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trio 일부 단원의 이름을 합치면 오원과 같은 발음이 난다는 일화도 있다. 유럽과 한국에서 수 차례의 공연과 녹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니버설 음반을 통해 드보르작 둠키 trio, 슈베르트 trio, 베토벤 trio 음반을 발매하였고 2011년 11월 LG아트센터의 초청으로 trio 오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인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순회공연을 하였고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Violin Olivier Charlier



14세의 나이에 이미 콩쿠르에 입상,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은 올리비에 샤를리에는 파리음악원에서 장 위보(실내악)와 피에르 도강(바이올린)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7세에 뮌헨 콩쿠르, 18세에 몬트리올 콩쿠르, 19세에는 시벨리우스 콩쿠르에 입상하였으며 자크 티보, SACEM 게오르게 에네스쿠상, 인디애나 폴리스 등 권위 있는 국제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헤이그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BBC 필하모닉, 할레 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 함부르크 및 자브뤼켄 라디오 오케스트라, 뷔르템베르크 체임버 오케스트라, 몬테카를로 필, 프라하 필,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요미우리 니혼 및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우수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로 협연하였으며 안 파스칼 토르틀리에 지휘의 BBC 필하모닉과 녹음한 뒤티외 바이올린 협주곡 "L'arbre des songes", 마티아스 바메르트 지휘의 BBC 심포니와 녹음한 로베르트 게르하르 협주곡은 산도스 레이블로 발매되어 프랑스 '음악의 승리' 상에 노미네이션 되었다. 또한 로렌스 포스터 지휘의 몬테 카를로 필하모닉과 멘델스존 협주곡, 장 자크 칸토로우 지휘의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와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EMI 프랑스), 장 위보의 피아노 반주로 프랑스 작곡가 프랑크가 작곡한 소나타 모음집을 녹음해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파리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Piano Emmanuel Strosser



엠마뉴엘 슈트로세는 6세가 되던 해에 그의 고향인 스트라스부르에서 Hélène Boschidhk와 함께 음악 공부

를 시작하였으며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여 장-클로드 펜티에와 피아노를, Christian Ivald와 함께 실내악을 공부하였다. 정기적으로 유럽과 멕시코, 남아메리카, 일본, 한국, 미국 등지에서 리사이틀의 솔리스트로 무대에 설 뿐 아니라 주요 프랑스 오케스트라인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릴 오케스트라, 몽펠리에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유럽북부, 이탈리아 등지에서 협연하였고 끌레르 데세르, 장 프랑스와 에세르, 레지 파스퀴에, 라파엘 올렉, 블라드미르 멘델스존, 로맹 귀요, 프랑소와 랠로, 이자이 콰르텟, 아티스 콰르텟, 프라작 콰르텟 등 많은 연주자들과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그의 수많은 음반 중 프랑소와 랠로와 함께 한 Nouveaux Interprètes 리사이틀(아모니아 문디)은 커다란 찬사를 받았으며, 에드먼 콜르메르 지휘 아래 피카르디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가브리엘 포레의 “발라드와 환상곡”(아싸이), 모차르트 피아노 솔로곡집(아모니아 문디), 베토벤 3개의 피아노 소나타 Op.10(아싸이), 레지 파스퀴에가 함께 참여한 포레, 드뷔시 바이올린 피아노 소나타(아싸이), 끌레르 데세르가 함께 참여한 드 보르작의 네 손을 위한 슬라브 무곡(미라레), 그리고 슈베르트 피아노 곡집(미라레) 등 수많은 앨범을 들려주고 있다. 현재 파리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Piano Yamaguchi Hiroaki



피아니스트 야마구치 히로아키는 1974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였고 1999년 교토시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솔로 피아니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도쿄에서 열린 68회 All Japan Competition에서 2등상과 Miyake 상을 수상하였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14회 Chopi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 참가,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6회 Japan Ensemble Competition에서 1등상과 2009년 교토에서 Kyoto Aoyama music award를 수상하였다.

현재 실내악과 피아노 솔리스트, 현대음악에서 편곡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체임버 음악을 위해 많은 편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첼리스트 양성원과 10년 동안 한국 각지의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교토 교육대학의 교수로 후학을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Percussion Bruno Desmouilleres



브뤼노 데무이에르는 Dante Agostinie에서 드럼을 전공하였고 John Tchicai, Pierre Faure, François Jeanneau's 워크샵에서 재즈를 공부했다. 1999년 Vannes에서 열린 재즈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TitipopoK, rhythmic scenes', 'Travel journal, a world journey of today's music' 등 다수 작품을 창작하였고 파리를 위해 'Jazz jump from pillar to post'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15년 동안 다양한 재즈, 팝음악, 전통적인 밴드 등을 위해 수많은 작품들을 제작해 오고 있다. 아코디언 연주자 Pascal Pallisco, 클라리넷앙상블 레봉백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며 열정적인 음악가로 25년 넘게 음악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리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es Chanteurs d'Oiseaux



Jean Boucault - _Lilroze



Johnny Rasse - _Lilroze

*어린이들이 피카디리 길을 걸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새소리를 따라 부르고 새들은 그들의 뒤에서 지저귄다.
10대들은 누가 더 잘 하는지 시합을 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의 듀오는 경이롭다.*

진 부코와 조니 하스는 인간의 목소리로 새소리를 내는데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다. 그들의 테크닉은 호흡, 휘파람, 떨리는 노래, 고음역의 휘파람, 저음역의 휘파람, 타악적 노래 등과 연결되어있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전세계를 거쳐 수천 마리의 다양한 새들의 소리로 확장된다.

2006년, Forêts de Compiègne 축제에서 피아니스트 Jean-François Zygel와 함께 무대에 섰다. 오늘날 Les Chanteurs d'Oiseaux(새들의 노래)는 새소리를 바탕으로 음악, 연극, 무용, 공연 등 어느 장르와도 협력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자연을 통한 즉흥은 2012년 봄, 야외공연에서 플루티스트 Pierre Hamon와 타악연주자 Joël Grare와 Birdyphonia 라는 작품을 공연했다. 또한 2013년 사운드 설치 예술가와 협업하여 공연을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프랑스 방송국과 Egodoc에서 그들의 활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그들의 경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낭트의 La Folle Journée에 초청되었고 Télérama 잡지의 커버스토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The Symphony of The Birds(새들의 심포니)작품으로 Shani Diluka 와 Geneviève Laurenceau 과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폴란드 등 세계무대를 향해 그들의 날갯짓을 더하고 있다.

Violin Liza Kerob



1973년 프랑스 푸르 출신인 리자 커로브는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15세에 Christophe Poiget 클래스의 1등을 수상했고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여 Michel Strauss, Gérard Poulet 클래스에서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수상을 했다. 1992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여 Aaron Rosand 와 수학하며 학사학위를 줄리어드 음악원에선 Glenn Dicterow의 가르침 아래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Eduard Schmieder, Hermann Krebbers, Erik Friedmann, Felix Galimir, Viktor Danchenko 교수들과 함께 공부하며 음악적으로 더욱 발전하였고 Natexis 재단의 수상자로 리자 커로브는 Douai competition, 뉴욕 Artists International competition, 스페인 the Pablo de Sarasate competition 등 다양한 국제콩쿨에서 수상하였다.

2000년도에 Marek Janowski 지휘로 Monte-Carlo Philharmonic Orchestra 협연에선 그녀를 슈퍼솔리스트라 칭하며 극찬을 받았다.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랄로, 멘델스존 등의 협주곡을 프랑스는 물론 다수의 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Roustem Saitkoulov, Philippe Bianconi, Vahan Mardirossian 등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을 했다. 또한 재즈에서부터 즉흥음악까지 장르의 경계를 두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2013년에는 Trio Goldberg를 창단하여 바하의 유명작품인 골든베르그 변주곡, Dmitry Sitkovetski의 현악 트리오를 연주하며 낭트, 오르세 미술과 등 다양한 곳에서 초청 공연을 하고 있다. 그녀는 1754년산 Battista Gabbrielli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Violin 김정민



바이올리니스트 김정민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럽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오랫동안 연주해 온 것 외에 실내악, 솔로 바이올린, 지휘, 연주 기획, 음악에 대한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 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베를린 예술대학교 재학 시절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체 오페에서 일한 것을 비롯해서 20대 초반에 이미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단원으로 발탁되어 로린 마젤, 버나드 하이팅크, 리카르도 무티, 마리스 얀손스 등 정상급 지휘자들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했다. 또한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의 지도 아래 실내악 석사 과정을 마쳤고 다양한 솔로 연주,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와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객원 연주 등을 통해서도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쌓았다. 2006년, 정명훈 지휘의 서울 시립 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임명되

어 귀국한 후 파르텍 올림,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등의 실내악 연주에 열정을 쏟는 한편 한양대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실내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2008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 런던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으며, 그 이후 런던 위그모어 홀, 케임브리지 등에서 동료들과 꾸준히 실내악 연주회를 갖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베를린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최근 런던의 유수 공연장인 킹스 플레이스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현재 주영 한국 문화원 주최 '코리아 사운드' 시리즈의 자문과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으며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2017년 영국 오케스트라 협회의 오케스트라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여섯 명 중 유일한 연주자이기도 하다.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김정민, 이순익, 김의명 교수,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김영옥 교수,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토마스 브란디스 교수를 사사했다. 국내에서는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음악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했고 부산시향과 협연한 바 있다.

Violin 임흥균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음대를 실기수석 입학 후 파리로 도불하였다. 파리 시립음악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한 그는 동음악원 실내악과정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이후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Konzertexamen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졸업하며 전문연주자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일찍이 한국일보콩쿠르 2위 입상을 시작으로 음악춘추, 음악저널, 국민일보콩쿠르 수상 및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콩쿠르에서 전체대상을 차지하였고 프랑스 Orchestre Lamoureux,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객원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지휘자 Christoph Eschenbach가 직접 참여한 오디션에서 파리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으로 발탁되어 활약 한 바 있으며, 독일 Schleswig-Holstein, 일본 PMF 오케스트라 페스티벌과 같은 오디션에 발탁되어 연주하였다. 또한 상임지휘자 Yutaka Sado에게 발탁되어 일본 Hyogo Performing Arts Center Orchestra 의 수석을 역임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일본 전역의 세계적인 수준의 홀에서 연주 활동은 물론 히사이시 조와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과 함께 공연 및 녹음 작업을 하며 NHK, 아사히 TV, 후지 TV 등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Riccardo Muti, Pierre Boulez, Kurt Masur, Paavo Järvi, Sir Neville Marriner, George Prêtre, Vladimir Fedoseyev, Yutaka Sado, 정명훈, Christoph Eschenbach, Fabio Luisi, Esa-pekka Salonen과 같은 세계적 마에스트로 아래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을 해왔으며, Uwe-Martin Haiberg, Régis Pasquier, Roland Daugareil, Philippe Aiche, David Lefèvre, 강동석, 박재홍, 이광호를 사사하였다.

그는 성남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충남도립 교향악단 객원악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출강중이며 (사)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단원, 클래식안 앙상블 단원으로 다채로운 실내악 활동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연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 중이다.

Viola 이수민



해마다 서울 스프링페스티벌, 서울 국제음악제, 통영 국제음악제를 비롯한 여러 음악제에 초청되어 연주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이수민은 예원학교 졸업 후 이미 서울예고 재학 당시 동아일보 콩쿠르 비올라 최연소 우승을 비롯,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비올라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친 후 졸업하던 해 독일정부 학술교류처인 DAAD의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도독하였고 쾰른 국립 음대에서 디플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쾰른음대에서 Rainer Moog을 사사했고 Nobuko Imai, Thomas Rieble(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교수), Wolfram Christ (전 베를린 필하모니 수석)등 세계적인 비올리스트들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지도를 받았으며 스위스 Verbier Music Festival, 영국 Prussia Cove Music Festival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참가하였다. 한편 현대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International Ensemble Modern

Academy에 발탁되었으며, 세계 현대 음악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독일 Ensemble Modern의 객원 비올리스트로 활동해왔다.

2010년에는 Duisburger Philharmoniker(Deutsche Oper am Rhein)의 비올라 수석으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되어 활동하였으며,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며 유럽의 주요 공연장인 Salzburg Music Festival, Paris Salle Pleyel, Berlin Konzerthaus, Frankfurt Alte Oper, Roma Santa Cecilia, Milano 등에서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국외에서도 Martin Matalon 등의 작품이 녹음된 음반이 프랑스 Hortus 레이블로 발매되어 이 음반이 현지 언론과 매체로부터 다수의 호평과 수상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명성의 재블 바 이올리니스트 강혜선과 듀오 콘서트를 가진 바 있다.

현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콰르텟 K, 화음 챔버오케스트라,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Viola 이한나



비올리니스트 이한나는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차세대 비올리니스트로 주목 받고 있다. 라비니아, 베르비에, 말보로 등 국제 유수 페스티벌에 다수 초청되어 킴 카쉬카시안, 폴린카, 루시 채프먼, 찰스 나이딕 등 명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었고, 2015년 월간 객석이 선정한 '차세대 이글 젊은 예술가'에 선정되었다. 2009년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리 협주곡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수상자 협연 연주회를 가졌으며, 2007년 국제 영아티스트 콩쿠르 1위, 헬람 영아티스트 콩쿠르 특별상, 오사카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를 석권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9년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시리즈'로 차세대 비올리니스트로 주목을 받았으며, 2011년 '금호 아티스트 시리즈 독주회', 2014년 '겨울나그네 전곡 독주회' 등 꾸준히 금호아트홀에서 초청 독주회를 열고 있다. 2016년 교향악축제에서 성남시향과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윌튼 콘첼토를 협연하였으며 2014년에는 코리안심포니와 버트르크 협주곡을, 구미음악제에서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2012년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청년 필하모닉 협연, KNUA 오케스트라와 NEC 필하모닉 등 여러 차례 협연한 바 있다.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로 입학하였으며, 오순화, 김상진, 이서영을, 커티스 음악원에서 로베르토 디아즈를 사사하였다.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리에서는 킴 카쉬카시안 지도 아래 석사과정 및 연주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노부코 이마이에 사사하였다. 2012년 'Kronberg Chamber Music Connects the World' 프로그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와 함께 연주하는 등 독일 무대를 비롯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이며 스프링 페스티벌, 부산 음악제, 구미음악제 등 꾸준히 초청을 받으며 실내악 연주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 솔로리스트 멤버로 정기공연 및 지방투어를 하며 올림푸스 앙상블, 오푸스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로망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1년에 결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의 비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며 쇼스타코비치 켈렛 전곡 연주, 아프리카 투어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영재교육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 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 솔로리스트 멤버로 정기공연 및 지방투어를 하며 올림푸스 앙상블, 오푸스 앙상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로망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1년에 결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의 비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며 쇼스타코비치 켈렛 전곡 연주, 아프리카 투어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영재교육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 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Cello 심준호



세계적인 거장 나탈리아 구트만으로부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은 첼리스트 심준호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모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타고난 음악적 재능의 빛을 내기 시작했다.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 영재 콘서트를 시작으로 2006년 제32회 중앙음악콩쿨 우승 등 다수의 콩쿨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쿨 2위 입상, 2010년 쥘레즈 뮤지컬 국제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으로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고, 독일 베를린 융에펠하모닉, 베오그라드 RTS방송교향악단,

Norwegian Radio Orchestra와 협연하였으며 Fagerborg music festival (Norway), Oudewater music festival (Netherland), Szeged music festival (Hungary), 2014-2015년 Bergen music festival 등에 초청되어 여러 차례 독주회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조영창을 사사하였고, 노르웨이 국립음악원에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트롤스 미르크를 사사하면서 Artist Diploma를 마쳤으며, 특히 그의 졸업 연주회는 노르웨이 국영 TV 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현재 유럽 European Chamber Music Academy 멤버와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Harpichord 조성연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하프시코드 연주자 중 한 사람'

-Early Music Society of the Netherlands

'유럽인들에게 본인들의 전통악기를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 연주자'

-Forteza

'악기와 직접 컨택하는 따뜻한 연주로 하프시코드 연주의 새로운 학파를 일궈냈다'

-KC Committee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연은 서울예고와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은사 광동순 교수의 권유로 하프시코드를 시작한 그녀는 고음악에 있어 최고의 수준과 권위를 자랑하는 헤이그 왕립음악원에 입학하며 Jacques Ogg 교수를 사사했다. 왕립음악원 재학시 이미 두각을 나타내어 이탈리아 몬테콤파트리의 재능 있는 젊은연주자 시리즈, 볼로냐 악기박물관, 네덜란드 'Cellobroekderkapel' 시리즈 등에 초청되었고, 왕립음악원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협연 등 솔로리스트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 왕립음악원 역사상 최초로 고음악 분야 초과만점(10+distinction) 및 수석 졸업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모든 분야의 졸업생들 중 최고의 연주자에게 수여되는 'Folk Medal'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졸업 후 하프시코드 동양인 최초로 보수적인 프랑스 Rennes 국제 고음악 페스티벌에서 초청 연주 후 극찬을 받음을 시작으로 '볼리비아 국제

고음악 페스티벌에서 세계적인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료 테라카도와 듀오 연주로 각종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으며, 볼리비아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최대의 문화재단 'La Caixa' 초청으로 8개 도시 순회 독주와 바로셀로나와 마드리드 주요 페스티벌, 전시회의 오프닝 초청 연주를 가진 그녀는 동양인 최초로 벨기에의 권위 있는 고음악 레이블 'Pasacaille'와 솔로 레코딩 계약을 맺었고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볼리비아,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으로 이어지는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 연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Financial Times에 '하프시코드를 노래하게 하는 놀라운 연주자', '2013 주목해야 할 연주자'로 소개되었다.

헤이그 왕립음악원 Jacques Ogg 클래스의 조교수이자 Ryo Terakado가 이끄는 고음악 앙상블 'Animacordo' 콘티누오 주자로 활동하며 바로크페스티벌 음악감독 및 도쿄바로크 맨버로일 가르델리노 바로크 앙상블 연주자로 활동하였고 현재 대전 고음악 페스티벌 감독,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로크팀)

Baroque Violin Kaori Toda



- 도쿄 예술대학 음악학과, 헤이그 왕립음악원(바로크 바이올린) 졸업
- 야마나시 고음악 경연대회 1위(1992), La Petite Bande, Les Talents Lyrics 참가(유럽 및 미주 투어)
- Andreas Scholl, Agnes Mellon, Francois Fernandez, Jos van Immerseel, Kuijken Brothers 등 유명 아티스트와 실내악 연주
- 바흐 콜레기움 재팬 창단멤버 및 바흐 '칸타타' 음반발매
- 아니마 콘코르디아 앙상블 창단. 일본, 유럽 등지에서 다수 음악 축제 참여 및 세미나, 강의, 연주 활동
- 현재 Classical Players Tokyo 악장, Anima Concordia Ensemble 멤버, 토호 음악대학 출강(바이올린, 실내악)

Baroque Violin 김서진



-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토론토 왕립학교 음악학과 수료, 헤이그 왕립음악원 졸업(사사 Enrico Gatti)
- Amsterdam Baroque Orchestra Scratch 콘서트 악장(지휘 Ton Koopman)
- The Orchestra of the Eighteenth Century 부수석(지휘 Frans Bruggen)
- Divino Sospiro, Brecon Baroque Festival Orchestra, Oh!(orkiestra historyczna), Concerto Amsterdam, New Dutch Academy, Collegium Musicum Den Haag 등 다수 연주
- Les Nations, Le Concert d'Apollon 등 실내악 연주
- 현재 폴란드 바로크 오케스트라 Capella Cracoviensis 제2바이올린 악장

Viola da gamba Mienke van der Velden



- 헤이그 왕립음악원 졸업
- 유럽 고음악 레이블 Channel, Ramee와 레코딩, 다수 Diapason상 수상
- 유럽 정상의 고음악 단체들과 협연 및 유럽의 유명 음악 페스티벌 초청 연주
- 네덜란드 고음악 앙상블 'L'Armonia Sonora' 음악 감독
- 현재 헤이그 왕립음악원, 암스테르담 음악원 교수

Harpsichordist Jacques Ogg



- 암스테르담 음악원 졸업
- Gramophone, Accent, Harmonia Mundi, Channel, Arkiv, Sony, EMI, Philips, Glossa, Globe 등 유럽의 고음악 주요 음반사와 레코딩
- 미네소타 Lyra Baroque Orchestra 음악감독
- Stern des Monats, Prix CHOC, Caecilia-Prize Belgium, Disco del mes 등 수상
- Juiz de Fora(브라질), 부에노스 아이레스, Mateus(포르투갈), Salamanca(스페인), Cracow(폴란드), 프라하, 부다페스트, 비엔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고음악 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교수로 초청
-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 및 Bach Leipzig 콩쿨, Praha Spring 콩쿨 심사위원

Mezzo Soprano Luciana Mancini



- 헤이그 왕립음악원 바로크 성악과 졸업
- Sasha Waltz와 Freiburger Barockorkester의 몬테베르디 <오르페오>에서 '프로세르피나', 드로트닝홀름축제 중 모차르트 <La Clemenza>의 '안니오', Enrico Onofri가 함께한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콘서트> 중 'Messaggera', Bergen Philharmonic과 Juanjo Mena가 지휘한 하이든 <십자가 상의 일곱 말씀>, 베를린 국립오페라와 Rene Jacobs가 지휘한 <에밀리오 데 카발리에리-최초의 오라토리오 '영과 육의 극'>외 세계적인 오페라, 오라토리오 무대와 페스티벌 등 다수 출연
- 사샤 발츠 연출의 <오르페오> '프로세르피나' 역으로 독일의 바덴바덴, 베를린 국립오페라, 버겐과 릴에서 공연 예정
-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The Messiah', 본 극장에서 피아졸라 'Maria de Buenos Aires'의 주인공 역

- 르네상스, 바로크, 후기 바로크 스타일의 다양한 음악축제 및 오페라, 오라토리오 출연